



배경사





제29장 바울의 성령 이해(3)

Jesus

III. 성령과 부활(로마서8:9~11 고린도전서15)

- ▶ 서론
- ▶ 로마서 8:9~11의 주석
 - 1) 성령의 내재하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 2) 그리스도의 내재하심.
 - 3) 내주하시는 성령: 부활의 중보자
- ▶ 고린도 교회의 성령과 부활 이해
 - 1) 최초의 복음 (고린도전서 15:1~11)
 - 2)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영(고전 15:44~49)
- ▶ 예수:그 사람의 아들
- ▶ 결론:성령과 부활





1. 서론

로마서 8:9-11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정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가능하게 된 축복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의 내재하심'이 보증하는 몸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로마서 8:9~11의 주석 ●

1) 성령의 내재하심:그리스도인의 정체성 - 1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심을 보니” (자체 번역)
(로마서 8:9)

▶ 롬 8:9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정죄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의 내재하심이라고 말하였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16)





2. 로마서 8:9~11의 주석 ●

1) 성령의 내재하심:그리스도인의 정체성 - 2

▶ 70인 역에서 히브리 성경의 ω 라는 동사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omega\kappa\acute{\epsilon}\omega$ 라는 말을 사용 하였다.

→ 이는 성령의 내재하심을 나타내려는, 전적으로 바울의 표현이다. $\omega\kappa\acute{\epsilon}\omega$ 를 사용함으로써 성령의 내재하심의 영원성을 묘사한다.





2. 로마서 8:9~11의 주석 ●

1) 성령의 내재하심:그리스도인의 정체성 - 3

▶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의 내재하심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보증하신다.



이와 같은 바울의 인식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증인인 성령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부활의 몸을 보증하실 것이라는 그의 확신에 기반을 둔 것이다.





2. 로마서 8:9~11의 주석 ●●

2) 그리스도의 내재하심 - 1

▶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롬 8:10)
 그리스도의 내재하심 ->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의 소망과 일치시킨다 (골 1:27)

바울이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 ▶ 성령과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 ▶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하나의 통일성으로 두 분이 하나되어 함께 거하시고 계심을 뜻한다. 이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의미한다.





2. 로마서 8:9~11의 주석

2) 그리스도의 내재하심 - 2

▶ 로마서 8:9-11: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죄를 정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다

▶ ‘의로 말미암아’ 에 대한 해석

롬 8:10에서 “의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롬 10:3 (롬 10: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에서 “하나님의 의”는 한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의롭다여겨 주시는 것을 가리킨다. 롬 8:10의 “의”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2. 로마서 8:9~11의 주석

2) 그리스도의 내재하심 - 3

▶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말씀에서 “의”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에서 인용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로마서 1:17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살리라”라고 번역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는다”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주제도 로마서의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2. 로마서 8:9~11의 주석 ●●

2) 그리스도의 내재하심 - 4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속제제물로 그 몸에 죄를 정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속함과 함께 영생을 주신다.
(참조: 롬 3:21~26)





2. 로마서 8:9~11의 주석

3) 내주하시는 성령:부활의 증보자 - 1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허락하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입게 될 몸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 이시다.

롬 8:11 예수의 육신적 부활에 대한 객관적, 역사적 측면을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쓰인 “εγείρειν” ‘죽은 자를 일으키다’ (부활기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동사)는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장차 임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예언하는 말씀에서 사용되었다.





2. 로마서 8:9~11의 주석

3) 내주하시는 성령: 부활의 중보자 - 2

➤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어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구원을 증거하며,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부활의 미래적 측면을 강조 하였다.

요 5: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아들의 생명을 주는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에 상응하여 나타나고 있다.

➤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재하시는 성령은 부활 생명의 중재자이시다.

아버지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4. 고린도 교회의 성령과 부활 이해 ●

1) 최초의 복음(고린도 전서 15:1~11) - 1

예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인들과의 논쟁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서 십자가에 내어준바 되었다함은 속죄의 대신적, 대표적 성격을 묘사한다.





4. 고린도 교회의 성령과 부활 이해 ●

1) 최초의 복음(고린도 전서 15:1~11) - 2

▶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의 시체가 정말로 무덤에 묻혔었음을 강조한다.

▶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의 몸이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게 되었음) 그 몸은 영적인 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흘 만에’- 예수의 예언과 일치하고 있다.





4. 고린도 교회의 성령과 부활 이해 ●

1) 최초의 복음(고린도 전서 15:1~11) - 3

▶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육신의 형체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증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고전 15:8에서 실제의 체험을 바탕으로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묻히셨던 예수가 부활하고 높임 받은 주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포를 확증한다.

▶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지적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안에서의 칭의도 헛것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 고린도 교회의 성령과 부활 이해 ●●

2)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영(고전 15:44~49) - 1

<육의 몸 vs 신령한 몸>
- 아담 그리스도 유형론

- ▶ 산 영(living soul)과 살려주는 영(life-giving soul)
- ▶ 신령한 몸은 무형의 몸 아닌 초자연적 특성 지닌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4. 고린도 교회의 성령과 부활 이해 ●●

2)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영(고전 15:44~49) - 2

▶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는 자로 불린다.
→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묘사'

▶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다.
즉 영광의 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5. 예수: 그 사람의 아들

Jesus

▶ 하나님 백성의 내포적 대표자 (inclusive representative)
예수님 말씀은 역설 - 하나님의 특권인 죄를 사하는 능력을 소유
하심으로 하나님과 한 분되시나,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고, 그것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로 주려 오셨다 (마가복음 10:45).

▶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가 되는 마지막 아담과 그리스도
를 동일시 한 것은 예수님이 인자 관련 말씀 중 드러내신 자기 계
시(예수가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
조하리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자기 계시)와 상통한다.

▶ 부활에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은 지상의 존재로 살고 있
으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6. 결론:성령과 부활 ●

성령의 내재하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위한
sine qua non(절대 불가결한 필요조건)
내재하시는 성령=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몸의 부활에 대한 유일한 보증, 보증인

바울은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몸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롭다 여겨주심을 선포하는 것이요,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은 부활을 보증하신다고 증거하였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에게

- (1) 칭의와 성화를 가능하게 하며,
- (2) 미래 부활의 기반이 된다.





6. 결론:성령과 부활 ●●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성령을 소유했다고 자만하여 미래 부활의 필요성을 부인하다가, 결국 방종에 빠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영광의 날을 사모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한다.

